

## 이라크, 경제재건 노력 가속화

### 1. 경제현황

#### □ 개요

-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1991~2003년 UN 경제제재,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음. 2004년에 원유의 생산, 수출이 재개되어 2008년 이후 연평균 7%의 경제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인당 GDP는 2010년 기준 2,531달러에 불과하여 중동에서 예멘 다음으로 저소득 국가임.
- 이라크전쟁 이후 정부는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의 지원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추진하여 왔으나, 빈번한 테러·저항 활동에 따른 치안 불안과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 석유산업이 경제의 동력

- 세계 제4위의 원유(확인매장량 1,150억 배럴), 제12위의 천연가스(112조  $\text{ft}^3$ )를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미탐사 유전지역이 많아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석유산업이 GDP의 60%, 수출의 98%,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열악한 투자환경

-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2012)을 기준으로 이라크는 총 183개국 중 164위를 기록하였음.
  - 전쟁 피해 등으로 악화된 인프라 시설과 빈번한 테러 발생 등 지속되는 치안 불안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함.



## 2. 경제 재건방안 및 시사점

### □ 정부 차원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

-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NIC)는 2010년 3월에 주택, 운송, 농업, 에너지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투자규모 1,500억 달러의 중장기 인프라투자계획(2010~25년)을 발표하였음.
-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도 총 투자규모 1,860억 달러의 국가개발계획(Iraqi government's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을 발표하였음.
  - NDP는 인프라 복구, 산업생산시설 증가, 경제성장률 연 9.38%, 매년 300만 ~4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함.
  - 부문별 투자배분비율은 석유·전력산업 등 30%, 건설·서비스산업 17%, 쿠르드 지역 개발 17%, 지방 개발 12.5%, 농업 9.5%, 운송·통신산업 9%, 교육 5%임.

### □ 원유생산 증대 및 전력 확보를 통한 개발기반 확충

- 석유산업이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유증산 여부가 전력, 주택, 건설, 인프라 등 재건사업의 재원 확보와 직결되므로 정부는 석유생산시설의 복구 및 현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현재 300만 b/d인 원유 생산량을 2017년까지 1,200만 b/d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 전력은 2010년 기준 생산량이 5,577MW로서 수요량인 8,677MW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공급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라크는 2012~17년에 27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생산량을 총 24,400MW\*까지 증대할 계획임.
  - \* 가스발전(13,000MW), 화력발전(7,000MW), 복합사이클 발전<sup>1)</sup>(4,000MW), 재생에너지(400MW)

1) 복합 사이클 발전(combined cycle power generation)은 화력 발전의 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가스터빈 발전에 사용한 고온의 가스로 증기를 발생시켜 이 증기로 다른 터빈을 회전시키는 것으로, 가스터빈 발전과 화력(증기 터빈) 발전을 결합시킨 발전 방식임.



## NIC의 2010~25년 인프라투자계획

단위: 개, 억 달러

분 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농 업	48	180
에 너 지	12	45
보 건	31	미정
주 택	100만(호)	500
통 신	6	6
관 광	151	미정
운 송	24	200

자료: NIC.

## □ 우리 기업의 대 이라크 진출 기회 증대

- 2010년 3월 총선 이후 이라크 정국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다 이라크의 경제재건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 이라크 진출이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2011년 2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사업(2억 2천만 달러)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STX 중공업이 디젤발전 플랜트 건설사업(30억 달러)을, 한화건설이 신도시 건설사업(7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해외건설 공사 사상 최대 규모)을 잇달아 수주하였음.

【박 유 정】